

아카데미에

가이드북

제11회 한남대학교 소실상 작품전

손을 놓으면

사단계절

가이드북 내 ‘국어 교사가 바라본 작품 해설 및 독서 후 질문’은 김영희 교사(조치원중학교)가 작성하였습니다.

김영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학생들과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하고 있다.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을 함께 썼다. 책의 힘, 우정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 그 힘으로 ‘호호책방’ 콘텐츠에서 사계절 청소년책을 알리고 있다.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
호호책방 콘텐츠



제11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

김나은, 박선훤, 은썬, 김해낭 글 | 서수연 그림

환대가 물결치는 세계에서 건네 온 손길

물로만 이루어진 케토라 행성에 사는 ‘나’는 행성에 불시착한 지구인 ‘유나’를 만나며, 난생처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나눕니다. 유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로 돌아가야 할 유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타 종족에 대한 경계심이나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는 인물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그려 낸 대상 수상작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을 비롯해, 편모를 돌보는 로봇의 전원을 끄고 싶은 일말의 욕망, 로봇이 대신하는 고백의 진실성, 세대를 뛰어넘는 우주 속 관계 등 일상과 우주 너머에서도 사랑과 우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청소년들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 (김나은 글)

낯선 대상과 친구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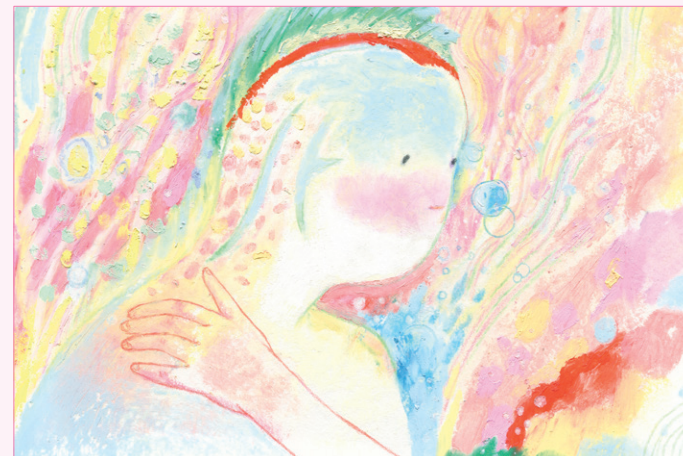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은 물의 행성 케토라에 사는 케토라인 ‘나’와 지구인 ‘유나’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화자인 ‘나’가 외계인이라는 설정이 흥미롭다. 이는 ‘나’가 자신과 다른 존재인 유나를 향해 느끼는 생소한 감각을 생생히 그려 내며 ‘낯설다’라는 인식을 느끼는 주체가 언제나 우리(=지구인)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낯설과 익숙함을 판단하는 일에는 권력의 속성이 배어 있다. 대상을 곁에 둘 것인지 혹은 멀리 치워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관계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낯설과 익숙함을 판단해 오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독자들에게 “얼굴은 울퉁불퉁했다. 중앙에는 작은 산처럼 피부가 솟아 있었고 양옆으로는 부드러운 털이 달린 눈이 있었다.”라고 외계인 ‘나’가 유나의 외양을 묘사하는 도입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자신의 위치를 판단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옮겨 보는 건 ‘우리의 범위’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 온 독자들에게 생경한 경험이 된다.

‘나’가 유나를 처음 만났을 때 “아름다워.”라고 깨끗하게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유나 또한 ‘나’의 몸을 구석구석 만지며 그를 인식하는 동안 연신 “자신의 언어로 끊임없이 감탄을 쏟아” 낸다. 자신과 타자 사이에 경계를 긋지 않는 두 주인공은 만남을 지속하며 “특히 오래 만난 사이”인 친구가 된다. ‘다름을 마주하는 자세’만큼이나 이 우정의 촉발과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대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를테면 아가미(코)에 손을 넣는 행위가 케토라에서는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지구에서는 무례한 일인 것처럼, 오해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형성한 문화를 함께 공부해야 한다. 부지런한 학습은 사랑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좋은 SF소설은 ‘차이’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은 탁월한 SF소설이다. 독자가 나와 다른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맺을 수 있음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가미에 손을 넣으면」

독서 후 질문

- ❶ 케토라인과 지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 ❷ ‘나’는 왜 친구의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 ❸ ‘나’가 유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❹ 음파 번역기가 있지만 ‘나’와 유나가 직접 만져 보며 소통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❺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가 바뀌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 ❻ ‘나’는 어떤 순간 유나와 “음파로 소통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한 기분”을 느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❼ 이별이 두려워서 먼저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 ❽ 작가가 유나가 지구로 돌아가며 ‘나’와 헤어지는 결말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❾ ‘나’는 왜 자신의 우주선에 ‘유나 1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 ❿ 지구와 케토라가 교류하며 두 행성에 각각 일어난 변화를 정리해 봅시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나란한 두 그림자」 (김나은 글)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참아야 하는 것

전국 각지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고, 지난봄 세상을 떠났던 ‘윤화’도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 「나란한 두 그림자」는 윤화를 짝사랑했던 ‘연우’를 통해 타인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윤화는 기억을 잃은 탓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져 연우를 찾는다. 연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친구에게서 자신을 찾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큰 갈등은 연우가 윤화를 ‘원래의 윤화’로 되돌리려 하면서 일어난다. 저승에서 돌아온 이들의 수용 시설인 유령보호소가 만들어졌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윤화를 보며 연우는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한다. 세상을 떠나기 전의 윤화처럼 부당한 대우에 화를 내고 저항하라는 연우의 종용에 윤화는 연우가 유령보호소의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유령보호소의 옹호자들이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연우가 윤화를 향해 반

복하는 문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화를 내야 너답다는 연우의 말에 윤화가 “그게 나라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아?”라는 질문을 되돌려 주자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연우는 윤화를 ‘고치는 것’이 그를 돕는 일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 연우는 자신의 마음이 윤화를 돕겠다는 선의보다, 자신이 알던 윤화를 되찾고 싶어 하는 이기적 욕망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비단 연우만의 실수가 아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의 어긋남들 또한 대체로 이에 기인한다.

「나란한 두 그림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신이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상대를 위한 것이란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짚는다. 연우도 언젠가부터 자신이 윤화보다 그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다. 결말에서 연우가 윤화에게 사과하며 “꼼꼼히, 그러나 천천히 배우면 될 거라는 믿음.”을 다짐하는 장면은 과거의 윤화를 복원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현재의 윤화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키가 다른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결말은 서로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나란한 두 그림자」

독서 후 질문

- ① 연우가 윤화를 돕기 위해 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 ② 연우의 도움이 실제로는 윤화에게 상처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친한 친구가 기억을 잃고 성격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 건가요?
- ④ 연우가 윤화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 윤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 ⑥ 윤화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것과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 ⑦ 연우가 “모르는 게 많아질수록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⑧ 소설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봅시다.
- ⑨ 소설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유령보호소의 운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까요? 유령보호소 운영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 ⑩ 우리 사회에서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조사해 봅시다.

우정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로봇이 없으면 시내에 나가는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인간이 로봇에게 의존하게 된 시대에, 주인이 잠든 시간을 틈타 그의 무의식을 로봇이 대신 실현하는 ‘로봇 몽유병’이 번진다. 절도에 서부터 동물 학대, 살인, 테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죄가 일어나지만 인간은 로봇을 폐기할 수 없다. 이미 로봇을 또 다른 ‘나’로 여기기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서 드러나는 반전은 주인공 ‘한별’이 내심 엄마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3년 전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버린 엄마를 뒷바라지하는 한별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돌봄 로봇 지원 예산이 끊기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 막막하다. 매일같이 한별은 돌봄 로봇이 멈추고 그로 인해 엄마가 죽어 가는 악몽을 꾸며 자신의 무의식에 엄마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동시에 한별은 일상을 돕는 로봇 ‘로로’가 로봇 몽유병에 걸려 자신의 무의식을 실현해 버릴까 걱정한다. 그 와중에 ‘꿈을 없애는 백신’의 반대 집회에서 만난 살인자의 엄마는 한별에게 불쾌감을 일으킨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모두 상황 탓으로 돌리는 그의 절규가 한별이 내심 품고 있었던 자기합리화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반 친구인 ‘세나’는 한별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킨다. 창창한 미래를 꿈꾸며 정의로운 활동에 열정을 쏟는 세나 앞에서, 한별은 매번 작아진다. 한별은 세나의 투명한 세상을 깨뜨리고 싶다는 욕망으로 세나에게 자신의 부도덕을 드러낸다. 사실 엄마의 죽음을 바란다는 한별의 고백에는, 세나를 해하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을 벌주고 싶다는 자기 파괴적 충동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백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된다. 한별의 어둠을 듣고도 세나가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순간, 한별은 자신의 욕망이 ‘인간적’이라는 것, 즉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야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던 생각과 마음이 서서히 풀린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별이 엄마 곁에서 평화롭게 잠드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 어두운 마음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 그를 깊은 잠으로 이끈 것이다. 이 결말은 금기시된 감정이나 욕망을 숨기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몽유」 독서 후 질문

- ❶ “로봇이 보급된 지 5년 만에 인간들은 스스로 손을 잃었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❷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AI에 의존하는 모습과 작품 속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 ❸ 한별은 매일 어떤 내용의 악몽을 꾸나요?
- ❹ 로봇 몽유병에 대해 국가에서 내놓은 해결책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 ❺ 한별이 ‘살인자의 엄마’의 발언을 듣고 불쾌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❻ 한별이 세나에게 “차라리 로로가 몽유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털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할 것 같은 어두운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 ❽ 세나가 한별에게 오늘 자고 가겠다는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❾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❿ 세나가 다녀간 날, 한별이 엄마 곁에서 오랜만에 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어 교사가 바라본 「고백 시나리오」 (은솔 글)

로봇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일

‘나인’이 로봇의 입을 빌려 ‘정후’에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통할 진심. 좀 더 깔끔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독백에 드러나듯 매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고민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고백 대행 업체에 전달한 뒤, 나인은 역설적으로 ‘고백의 주체가 없어서’ 완성도가 높아진 고백을 성사시킨다. 나인은 고백을 마치고 돌아온 로봇을 바라보며 “소중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생각을 스치듯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연인으로 새롭게 정립된 정후와의 만남에 몰두한다.

하지만 나인의 고백 시나리오가 입소문을 타고 무단으로 복제되어 퍼져 나가며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 기억은 “편의점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처럼 흔해진다. 마음속으로 정후를 떠올리며 다듬었던 치밀하고 깊은 시나리오는 여러 고백봇의 발화로 고유성이 휘발되고 만다. 나인은 로봇의 대행 서비스로 고백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후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해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는 업체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제야 나인은 소중한 이와 더 완벽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이 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인이 “당장 가서 고백이라는 문을 내 힘으로 열어젖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한 후 정후와의 관계는 차차 회복된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내내 연습했던 문장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 계산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쏟아 내지만, 나인이 드러낸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정후의 마음을 돌려세운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고백붓이 개입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다시 1일”이라 이름 붙이며 시작한다.

「고백 시나리오」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사랑은 여전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투름과 불완전함이 진심을 더욱 진심답게 만든다고 말한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폄훼되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고백 시나리오」

독서 후 질문

- ❶ “어차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음.”이라는 후기를 읽는 나인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반드시 근거를 들어 주세요.
- ❷ 나인이 정후에게 직접 고백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❸ 고백을 하고 돌아온 로봇을 본 나인이 “소중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❹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회피한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당시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나요?
- ❺ 정후는 왜 로봇이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 ❻ “고백만 로봇이 했지. 나머지는 다 나였거든.”이라는 나인의 말은 옳은가요, 그른가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❼ 나인의 고백 시나리오는 어떤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나요?
- ❽ 나인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편의점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 같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❾ 친구와 싸운 뒤 화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나요? 이유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 ❿ 기술이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체할 수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루토’이건 ‘왜행성 134040’이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외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아홉 번째 행성에서 왜행성 134340으로 강등된 (구)플루토의 역사는 사회에서 ‘타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배제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마빈 박사’는 비용이 부족해 추모관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소외된 플루토를 유골을 안장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는 단순한 우주장례 서비스가 아니라 ‘베티 할머니’의 유지를 지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베티 할머니가 열한 살 때 새롭게 발견된 아홉 번째 천체의 이름을 공모하는 전 지구적 이벤트가 열렸다. 베티 할머니는 해당 천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출했고 그것은 새로운 행성의 이름이 된다. 훗날 플루토는 행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름을 빼앗기지만, 마빈 박사는 자신이 ‘플루토호’라고 명명한 우주선을 왜행성 134340으로 띄워 보낸다. 결국에는 이곳에 ‘플루토호가 도착하는 곳, 사회적 약자들의 유골을 보내는 행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베티 할머니가 처음 플루토를 명명할 때의 의미(죽은 자들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명계의 지배자)를 본뜬 것이다. 세상을 떠나기 전 베티 할머니가 마빈에게 남긴 편지에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다. 플루토

가 인간에게 발견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듯,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이듯.”이 쓰여 있었다. 이 문장에는 외부의 평가나 분류가 바뀌어도 존재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플루토가 행성에서 왜행성으로 강등되었지만 천체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타인이 만든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타자’들 또한 고유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 베티 할머니와 마빈 박사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눈에 새로운 렌즈를 씌워 준다.

작품의 말미에서 열한 살로 돌아간 베티 할머니가 플루토에서 “안녕, 플루토!”라고 인사하고 플루토는 “보고 싶었어, 베티!”라고 화답한다. 이 환상적 장면은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연결되는 관계는 죽음마저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더불어 “베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얼음이 녹고 따뜻한 발자국이 찍혔다.”라는 묘사를 통해 진정한 관심이 가진 생명력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플루토」 독서 후 질문

- ❶ 플루토의 발견은 베티 할머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❷ 베티 할머니와 마빈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❸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잘못 판단했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외면받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 ❹ 플루토가 행성에서 왜행성으로 분류가 바뀐 것에 대한 베티 할머니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 ❺ 베티 할머니의 편지에 담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다.”라는 메시지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❻ 베티 할머니가 마빈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요?
- ❼ 마빈 박사가 일반인들의 유골함을 플루토로 보내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❽ “죽은 자의 영혼이 사는 명계”라는 플루토의 설정이 작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❾ “베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얼음이 녹고 따듯한 발자국이 찍혔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❿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SF소설을 읽는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한낙원과학소설상 들어다보기

한낙원과학소설상은 평생 과학소설을 써 온 고(故) 한낙원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가를 발굴하기 위해 한낙원 선생의 탄생 90주년인 2014년에 처음 제정했다. 한낙원 선생의 유족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상은 어린이책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잡지 계간 『어린이와 문학』에서 공모와 시상상을 맡고 있다. 사계절출판사가 매년 각 회의 수상작들을 모아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펴내고 있다.



제10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시간 속의 너에게

김문경, 정교영, 이새벽, 별민영, 김미연 글

#마음
#차별
#정체성

시간이 멈추어도 마음 곁에
영원히 흐를 이야기

은하는 내 한손을 잡아 자기가 들고 있던 손바닥에 가져다 댔다. 그런 다음 내 눈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다. “마음에 담으면 언제나 곁에 있는 거야.”



제8·9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사라지지 않아

채은랑, 연여름, 김두경, 존 프렘, 이새벽, 나현 글

#관계
#불행
#인공지능

과학기술 발달로 오히려 희미해져 가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에 주목하다

“행성 우편함에는 읽지 않은 편지가 쌓여 갔다. 당신의 캐릭터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곧 당신의 행성이 영구 삭제되니 그 전에 백업하라는 편지가 가도 현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7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항체의 딜레마

임서진, 소향, 조윤영, 나혜림, 임성은 글

#바이러스
#기후위기
#환경오염

대기 오염으로 인한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구할 유일한 항체 안드로이드 A의 탈출기

“논으로 지구 인구가 4분의 1 줄었는지? 하지만 인간 때문에 지구 생물 절반이 멸종했어. 인류는 이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제6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고조를 찾아서

이지은, 이필원, 이지아, 은정 글

#시간여행
#가상현실

친일파 고조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난 어린이의 모험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말도 안 돼! 제발, 제발 마음을 바꿔요, 할아버지!”



제5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푸른 머리카락

남유하, 이필원, 허진희, 이덕래, 최상아 글

#소수자
#수명예측
#외계인

이주 외계인과 지구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과 지구인 소녀의 특별한 만남

“너 정말 모르겠어? 여기가 내 고향,
우리 별이야. 난 자이밀 행성에 가 본
적도 없어. 나도 너와 같은 지구인이
라고.”



제4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마지막 히치하이커

문이소, 남예은, 은이결, 민경하 글

#휴머노이드
#히치봇실험
#인공지능

인간과 친구가 되려다 고장 나고 부서진
로봇, 그를 업고 길을 걷은 소녀의 특별한
여행

“전 정말 운이 좋아요. 길에서 227일
동안 생존한 휴머노이드니까요. 제
첫사랑이 되어 줄래요?”



제3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세 개의 시간

윤여경, 박효명, 허진희, 김유경, 허운,
임우진 글

#우주여행
#타임리셋
#생명과학

한 공간에 세 개의 시간이 흐른다.
생체 시간을 리셋하라!

“지구.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
르는 곳. 서로의 시간 속도가 다르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 분 일
초를 보내는 곳. 디테이가 되어 지구
에 도착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제2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하늘은 무섭지 않아

고호관, 이민진, 임태운, 우미옥, 김명완 글

#우주전쟁
#로봇
#유전자조작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을 통째로 뒤집는
기발하고 유쾌한 미래가 펼쳐진다!

“아직 그 느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 겁먹지 말라고. 어른들
말처럼 미래는 우리의 것이잖아? 그
리고 장담하건대, 그 미래는 이 지구
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제1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안녕, 베타

최영희, 권담, 이인아, 경린, 김란, 홍유정 글

#복제인간

#우주식민지

#안드로이드펫

원인간이든 대체 인간이든,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니까

“너 같은 원인간이 중고품 대체 인간
의 유구한 삶과 죽음을 알 리 없지. 나
처럼 살고 죽기를 반복하다 보면 알
게 되는 것들이 많아.”

